

습근평 총서기 연변 시찰 10주년 집중취재보도 (1)-연길편

# 간곡한 당부 명기하며 새 연변 향해 힘차게 나아가다

▶ 1 면에서

기증 모순해결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왕숙정은 '숙정언니사업실'을 설립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모순과 분쟁 1만여건을 조정했다. 7개 군경대오와 공동주둔 공동건설 단위를 결성하고 '대리가족'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부대 장병들과 100여명의 여러 민족 독거로인, 결혼가정 아동이 연을 맺게 해 군민의 정을 깊이했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내 독거로인, 결혼가정 아동들로 하여금 온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편, 연변주와 연길시 및 상급부문의 지원하에 '홍석류의 집'은 전 주 첫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견학중심과 전 주 유일의 사회구역 견학중심으로 되었다.

연변박물관, 력사의 문맥 전송하고 연변 이야기 폭넓게 전파

2015년 7월 16일, 연변에 도착한 습근평 총서기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연변박물관을 찾아 연변주의 총체적인 상황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연변주 성과 전시관과 조선족 민속 전시관을 참관했다.

10년간 연변박물관은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력사 문맥의 전송과 민족단결진보 이야기를 잘 펼쳐내는 것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의 이야기를 잘 전함으로써 중화민족공동체식을 효과적으로 확고히 수립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변박물관은 총 6,000 만원을 투자해 전시공간을 승격시키고 112 점의 진귀한 문물에 3D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했다. 2024년에는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주제전을 개최했는데 1,400 점의 문물을 통해 민족간의 공통된 이야기를 전달하며 일일 최대 1만 8,000명의 관람 기록을 세웠다. 10년간 연인원 200만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포파해설원' 등 600여차례의 행사를 통해 2만여명의 청소년을 단련시켰다. 또한 전국 19개 박물관에서 민속전시회를 개최하며 여러 민족간의 문화교류와 상호 참고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길림대학부속중학교연길분교 수업시간에 한 남학생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중국조선족민속원, 전송과 혁신으로 관광 명소로 떠오르다

모아산 기슭의 중국조선족민속원은 최근년간 민속전시, 무형문화유산 체험, 특색음식, 문화교류의 유기적인 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변 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떡, 감주, 도예, 감지 담그기, 씨름, 그네뛰기 등 행사들이 화려한 민

족문화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고 특색 여행촬영 브랜드를 힘써 구축해 복장 임대, 메이크업, 사진촬영을 일체화한 여행촬영기지를 건설했다. 이에 따라 민족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은 많은 관광객들의 연변 관광의 필수사항으로 되었다. 또한 민속원은 40체의 조선족 특색 민가들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9채 건축은 이미 10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는바 전통 민가 보호

와 보수를 지속적으로 잘하는 한편 여러 무형문화유산을 전통 민가에 도입하여 관광객들이 몰입식 민속문화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속원은 연변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아가는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길대부중분교, '혼합편성학급' 제도로 민족교육의 혁신적 발전 이끈다

2023년 설립된 길림대학부속중학교연길분교(연길시제2고급중학교)는 현재 두개 학년 195명의 학생중 한어권 학생과 조선어권 학생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길림대학부속중학교 본교에서 파견된 11명의 핵심 교원이 연길분교의 교육사업을 맡고 있는데 장춘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인 '혼합편성학급'(混合编班) 체계를 도입해 연변주 학과경연대회에서 혼합팀의 수상률이 73%를 달성했다. 또한 '학업+인성' 이중 평가 체계를 구축해 2023학년도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입학 당시보다 42점 상승하는 등 성과를 거두

었다. 따라서 2025년에는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문과학급을 단계적으로 증설하여 인재 양성 탐색을 심화시킬 예정이다.

소화원, 민생에 실질적인 혜택 전달

'연길북화미화' 행동의 대표 프로젝트인 소화원은 9,275 만원을 투자해 3만 400평방미터의 운동 주제 공원으로 건설되었다. 공원에는 미국 단풍나무 등 383그루의 교목이 심어져있고 룡구장 등 5가지 종류의 운동시설과 255개 스마트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있다. 또한 옥상정원과 지하광장 등 립체적인 설계를 적극 활용해 총 1만 2,000평방미터의 록지 공간을 조성했다. 시험 운영 기간에 벌써 하루 평균 1,500명이 이곳을 찾았으며 주말에는 시설 사용률이 90%에 달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소화원은 이미 완공된 22개의 공원과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게 리용할 수 있는 '15분 운동권'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오건기자



습근평 총서기 연변 시찰 10주년 집중취재보도 (2)-훈춘편

# 고품질 발전으로 이루어진 훈춘의 아름다운 변화

올해는 습근평 총서기 연변을 시찰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14.5'계획을 전면적으로 마무리하는 해이다.

7월 3일, 기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집중조사연구취재팀 일원으로 훈춘시를 방문했다. 이 기회에 변경 도시가 10년간 분투해온 발전취를 되돌아보고 고품질 발전으로 이루어진 훈춘의 아름다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훈춘해양경제시범구 동북아수산물 단지에 들어서면 현대적인 건물들과 함께 짙은 바다향이 밀려온다.

관련 책임자 류암송(刘岩松)은 "예전에 이곳은 황무지였다. 옆에는 포항물류와 통관중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2023년 5월에 6.63억원을 투자해 이 프로젝트가 착공했는데 부지면적은 10.96만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0.7만평방미터이다. 주로 종합청사, 양식센터, 랑동창고, 다기능창고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라며 "가공, 집산, 판매, 수출입 등의 기능을 통합한 신선해산물 집산지지가 구축되면 년간 생산액 15억원, 세금 납부액 2억원 이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6년 훈춘항구가 랑장 해산물 수입 및 식용 수생동물 지정 항구로 승인된 이래 년간



훈춘동북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의 러시아 수입품 코너에서 판매원이 고객의 상품 결제를 도와주고 있다.

킹크랩 수입량은 150만마리를 넘어섰다. 현재 훈춘항구는 러시아 킹크랩이 중국에 들어오는 주요 통로로 자리매김했다.

훈춘동북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의 라이브 방송실 진열대에는 다양한 '훈자호(琿字号)'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생동감 있는 설명과 함께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8년, 훈춘시는 러시아에 대한 다국전자상거래 룰로 '백관' 통상구를 혁신적으로 설립하여 러시아 세관이 인증하는 '9610 훈춘 기준'을 창

출했다. 이후에는 '1239', '1210', '9710', '9810' 등 수출입 사업을 순차적으로 개통하며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입 전 모식의 원활한 운영을 실현했다.

2019년 12월에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훈춘시에 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가 설립되었고 2022년에는 총투자액 6.5억원, 건축면적 11.5만평방미터의 훈춘동북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가 사용에 들어갔는데 상품전시판매중심, 생방송기지, 공유형 창업공간, 전자상거래육성중심

등이 마련되어있어 다국전자상거래 기업들에 좋은 발전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훈춘시 신안가두 서교촌에 위치한 실크로드 발해고진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건축물들이 줄지어있고 붉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건축물들이 웅장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멀리 않은 곳에 위치한 오대성 국토수북기념관은 관광객들에게 훈춘의 깊은 력사와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서교촌 제1서기 장홍암(张洪岩)은 "서교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지난날 이곳은 단층집 구역으로 더럽고 허술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외지로 나가 일자리를 찾다 보니 마을 인구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고 로동자원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2022년 훈춘시는 서교촌의 비사용중인 주택기지를 활용하여 훈춘 실크로드 발해고진 프로젝트를 개발, 건설했다. 이 프로젝트는 발해국 등 력사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문화를 통해 관광을 형성하고 관광을 통해 문화를 드러내며 문화와 관광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진했다. 이는 또한 서교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부창출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고 주민들의 귀향창업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서교촌에서 일하고 생활하도록 많

은 외부인들을 끌어들이었다.

훈춘 실크로드 발해고진 관광봉사부 책임자 윤용(尹蓉)은 "총투자액 4억 8,000만원인 실크로드 발해고진 프로젝트는 당조시기 발해국의 력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 시기 건축 풍격과 결부해 발해국의 력사, 문화 풍모를 참관 체험, 음식 및 숙박, 쇼핑 및 오락의 여러 차원에 녹여냄으로써 많은 시민, 관광객들이 발해정취를 느끼도록 하고 이들에게 력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몰입식 관광 코스를 제공하는 등 훈춘 문화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했

다."고 밝혔다.

10년간 훈춘시는 시중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분발분진하며 용감하게 전진해왔다. 규모가 크고 추진력이 강한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완공되며 운행에 들어갔으며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날아갈 새로워지고 봉사 기능이 현저히 제고되었으며 주거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현재 훈춘시는 고품질 발전의 궤도에서 꾸준히 발전해나가고 있다. /오건기자



훈춘해양경제시범구 동북아수산물단지의 수조 앞에서 종업원이 물속에 있는 킹크랩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다.

